

8-30-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로마서 8:19-25

말씀 제목: 왜, 피조물들이 우리의 휴거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가?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피조물이 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롬 8:20-21)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감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고전 15:51-53)

휴거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에 피조물들도 더 이상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들은 그 날이 오게 될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인해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창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썩어짐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죽을 몸과 썩을 몸을 변화시켜 영화로운 몸을 입을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죄악 세상 가운데 신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들은 비록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기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 환란 끝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해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 환란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창조물들이
누리는 영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 가운데 다른 창조물들처럼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롬
8:24-25)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휴거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으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휴거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딤후
4:7-8)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잡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은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법랍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벧후 3:3-7)

아멘! 할렐루야!